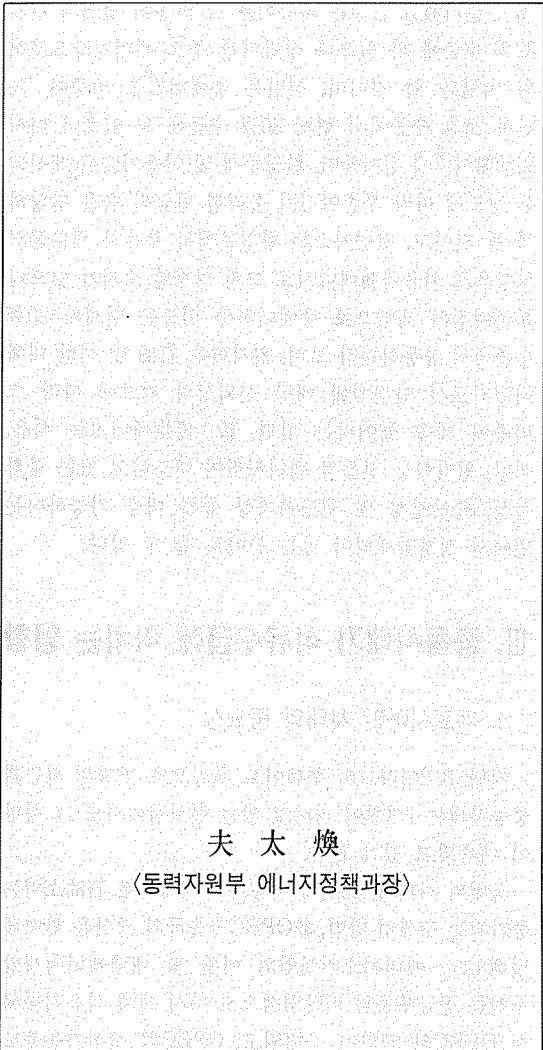


I. 에너지동향의 큰 흐름

石油, 석탄, 천연가스 및 원자력으로 대표되는 주종에너지源들은 부존여건과 기술수준등 주어진 바탕위에 자원보호 또는 자원무기화, 환경문제등 정책변수가 작용

에너지수급전망과 정책방향



夫 太 煥

(동력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

하여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침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과 편의성, 그리고 청결성을 추구하는 큰 흐름의 수요추세에 따라 에너지원간의 경쟁과 충돌등을 거치면서 각기 확장, 위축 또는 다른 형태로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원보유국과 빈곤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에너지소비량 및 그 증가율, 에너지源別 의존도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나 대체로 선진국은 에너지소비 규모가 큰 대신 증가율은 완만한 반면, 개도국은 그 규모는 적으나 증가율은 높은 현재의 추세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8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는 OECD제국이 49.7%, 공산권이 34%, 기타자유세계가 16.3%를 소비하고 있고, 소비증가율을 보면 '86~'88간 OECD제국이 2.4%, 공산권이 3.1%, 기타 자유세계가 5.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에너지원별로는 '88년 기준으로 石油가 37.6%, 석탄이 30.1%, 천연가스가 20.2%, 원자력이 5.4%, 수력이 6.7%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2000년대초 중반까지 세계에너지수요는 여러 가지 변수와 전제에 따라 전문가마다 다른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로 지금까지 추세가 이어져 일반적으로 OECD 제국은 1~2% 수준의 낮은 증가율, 공산권은 3% 수준의 증가율, 기타 자유세계는 4% 수준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는데, 최근 개방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東歐圈도 개도국에 못지 않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I.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과 전망

1.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부존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에너지자원의 유한성을 살펴보면 자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 석탄은 확인 매장량 약 1조755억톤으로 가채년수가 332년이나 되어 다음 세기까지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 石油는 확인매장량 약 9,000억배럴로 가채년수가 40년에 불과하고,
- 천연가스는 확인매장량 890억톤으로 가채년수가 57년,
- 우라늄은 자유세계의 확인매장량 2,233천tu으로 가채년수가 51년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물론, 石油의 궁극 가채매장량이 2조배럴, 천연가스의 궁극가채 매장량이 1,200억톤 내지 2,420억톤으로 각각 확정되고 있어 가채년수가 상당기간 연장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부존자원의 편재성 역시 자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 석탄은 확인매장량의 50%가 아시아 共産圈지역에,

- 石油는 확인매장량의 60%가 中東 및 북아프리카지역에,
- 천연가스는 확인매장량의 40%가 東歐 및 蘇聯지역에, 26%가 中東 및 북아프리카지역에,
- 우라늄은 확인매장량의 36.7%가 北美지역에, 20%가 남아프리카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에너지 수급전망

세계에너지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 등의 여건과 에너지소비 추세를 기초로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해 보면 '73년 1차 석유파동시 總에너지소비중 비중이 47.3% 수준이었던 石油는 파동이후 그 비중이 떨어져 현재 37% 수준에 와 있으나 상당기간 주요 에너지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석탄은 총에너지중 비중이 '73년의 28% 수준에서 현재 30% 수준에 와 있으나 다시 高油價시대에 접어들면, 환경문제 및 이용기술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부존여건이 유리한 만큼의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천연가스는 환경문제의 부각과 개도국의 성장으로 석유대체에너지로 크게 성장할 소지가 있으나 부존여건의 제약으로 총에너지중 비중은 현재의 20% 수준에서 유동하리라 보며, 원자력은 石油 및 석탄 대체 에너지로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한편, 新·再生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등 전통적 에너지원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및 환경파괴성 등에 대응 가능하다는 면에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세계에너지자원 확인매장량 분포

(단위 : %)

	석 탄	석 유	천연가스	우 라늄
北 美	20.0	6.1	10.9	36.7
西 欧	4.5	2.7	5.7	5.6
東 歐 · 소련	18.0	9.3	41.6	15.1
中東 · 북아프리카		60.0	26.4	0.7
남 미	4.4	2.9	2.3	20.6
동 남 아 시 아	1.7	2.6	6.0	1.7
아 시 아 共産圈	50.2	2.8	0.8	15.1
중 남 미	1.2	13.6	6.3	4.5
計	100.0	100.0	100.0	100.0

III. 중동사태가 석유수급에 미치는 영향

1. 페르시아만 사태의 중요성

지난 8.2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된 최근의 중동사태는 1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향방이 예측되고 있지 않다.

금번의 사태가 '80년대 저유가의 지속으로 石油소비는 증가되는 추세인 반면, 非OPEC산유국의 생산은 한계에 달해있고, 에너지소비절약의 이완 및 대체에너지개발 부진등 공급부문의 비탄력성으로 다시 세계 석유시장에서 OPEC의 역할이 증대되고, OPEC의 생산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발생됨으로써 '90년대 중반에 예상되던 高油價시대가 당초보다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다.

OPEC의존도 및 가동률 추이

	1973	1979	1985	1989
OPEC점유율(%)	67	61	38	45
OPEC가동률(%)	81	90	54	72
美國의 石油輸入 의존도(%)	37.2	45.6	28.9	45.0

지난 1,2차 석유파동시에도 단기적인 수급파동이 상당 기간 高油價시대를 선도한 결과가 되어 '73년 1차 파동시는 '73년에서 '74년사이 1년동안 OPEC 공시가격(A-L기준)이 2,59\$/B에서 11.65\$/B로 4배이상 상승했고, 그 오른 가격수준이 '79년 2차 파동시까지 유지되었으며, '79년 2차 파동시는 '79년에서 '81년사이 3년동안 OPEC공시가격이 12.70\$/B에서 34\$/B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그 오른세가 '82년말까지 유지된 바 있다.

2. 세계 石油수급에 대한 영향

당초 금년도 자유세계 石油소비는 하루 53.5백만 배럴로 전망되고 있다. 2차파동 시기인 '79년에 하루 52.4백만배럴이었던 것이 '85년에는 45.6백만배럴로 떨어졌

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79년 수준인 52.3백만 배럴까지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하루 약 1백만배럴이 더 증가하는 수준이다. 금년도 공급은 이보다 다소 많은 하루 54.1백만배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의 中東사태로 이라크가 하루 약 270만배럴, 쿠웨이트가 약 130만배럴 등 총 400만배럴이 공급되지 않아 전체 공급물량의 7.3%가 영향을 받고 있는 계산이다.

8월 29일 OPEC 긴급석유장관회의에서 OPEC의 석유안정공급원칙을 재확인하고 360만B/D 수준의 증산을 합의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227만B/D, 아랍에미리트 50만B/D, 인도네시아 11만B/D 등의 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세계 재고물량이 100여일분되어 아직까지 물량부족사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 성수기의 계절수요와 겹쳐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될 가능성도 높다.

3. 국내 석유수급에 대한 영향

'90년 수급계획상 국내석유수요는 하루 916천배럴로 되어 있다. 중동사태는 쿠웨이트 및 이라크 두 나라와의 장기계약분 75천배럴과 현물구입예정분 34천배럴등, 총 109천배럴의 공급차질이 발생하여 이는 금년도 계획 수요의 11.8%에 해당된다.

다행히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내석유공급기반이 크게 보강되어 '79년의 2차파동시와 비교할 때 原油導入先은 3개국에서 18개국으로, 中東의존도는 100%에서 75.2%로, 石油의존도는 62.8%에서 53.9%로, 電力부

'90자유세계 석유수요전망

(단위 : 백만B/D)

	1989	1990 (전망)				
	연 간	1 / 4	2 / 4	3 / 4	4 / 4	연 간
소 비	52.3	54.2	52.0	52.4	55.5	53.5
공 급	52.7	54.3	54.6	52.8	54.6	54.1
- OPEC原油	21.7	23.7	23.5	22.2	23.9	23.3
- 非 OPEC 공급	25.0	25.1	25.2	24.8	25.3	25.1
- 共產圈수출	2.4	1.9	2.3	2.2	1.8	2.1
- NGL, 기타	3.6	3.6	3.6	3.6	3.6	3.6
재 고 변 동	+0.4	+0.1	+2.6	+0.4	-0.9	+0.6
재 고 (비축포함) (백 만 B)	5,250	5,268	5,506			
재 고 일 수	97	101	105			

문의 石油의존도는 81.1%에서 17.0%로 개선되어 있을 뿐 아니라, 2차과동시에는 전무했던 정부석유비축 약 3,800만배럴이 있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해외유전개발사업중 北예멘 마리브 광구등 3개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서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온 안정공급기반이 급변 사태의 대응에 상당한 여유를 제공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등 주요 OPEC산유국이 증산에 따라 장기계약물량을 증량하고, 정책원유를 신규확보하며, 유전개발 원유등을 국내도입하는등 대책을 강구하여 두나라로부터 중단된 물량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 세계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수급사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IV. 국내 에너지수급동향과 향후전망

1. 국내에너지 수급추이

국내1차 에너지수요는 개발년대인 60~70년대는 7% 수준, '80년대는 전반은 제2차 석유파동등의 영향으로 4%수준, 후반은 10%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에너지원별로 보면,

石油는 主油從炭에 힘입어 '60년대는 26% 수준으로 높게 증가한 반면, 1, 2차 파동 영향기간인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전반은 각각 12% 수준 및 0.5% 수준 증가로 저조하던 것이 후반에는 '80년대의 저유가로 10%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연탄은 가정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서 '60년대부터 4~7%의 신장세가 꾸준히 지속되다가 '80년대의 저유가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石油 및 가스에 대체되어 '87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유연탄은 石油 대체에너지로서 1, 2차 파동 영향기간인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전반에 각각 37% 수준 및 22% 수준으로 급증했으나 石油대체가 거의 이루어 지는데다 '80년대의 저유가로 '80년대 후반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원자력은 공급의 안정성, 대규모 기저부하 사용적합성 등으로 발전부문의 석유대체원으로서 '78년 국내최초로 원자력 1호기가 가동된 후 '89년까지 9기가 준공됨에

따라 발전량 비중도 '89년에는 50.1%(설비비중 36.3%)에 이르고 있고,

LNG는 '86~2006년간 인도네시아와 연간 200만톤 도입계약으로 '86년부터 도입되어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87년부터 '90년간 도시가스용 사용이 연평균 93.5%로 급신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수급구조도 '60년대는 신탄과 무연탄위주의 자급자족 구조에서, 오늘에 와서는 石油, 유연탄 및 原子力위주의 대외의존적 구조로 변천되어 '89년의 總에너지중 석유비중이 49.6%,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85.5%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수급구조 변화

에너지원별비중 (%)	1962	1989	증가율 (%P)
石油	9.8	49.6	39.8
무연탄	35.6	13.5	△22.1
유연탄	1.2	16.5	15.3
원자력	-	14.5	14.5
LNG	-	3.2	3.2
신수	51.7	1.3	△50.4
석유 의존도 (%)	9.8	49.6	39.8
해외 의존도 (%)	10.9	85.5	74.6

2. 최근의 에너지소비동향

'80년대 후반기 總에너지소비 증가율은 9.7%로 전반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90년 상반기 증가율도 14.3%로 '89년 동기의 8.1%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80년대 들어 그동안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89년부터 '70년대에 나타났던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게 된 것이다. 소비증가내역을 보면, 石油와 전력소비가 두드러진 가운데 산업 및 수송부문소비의 높은 증가율에 가정·상업부문도 가세하고 있어 에너지소비경향이 생산부문이 아닌 소비성 부문에서 고급에너지 중심으로 급증하여 '90상반기중 수송용 휘발유는 전년동기비 33.9%, 가정·상업용 등유는 101.3%, 상업용 전력은 26.6%, 가정용 전력은 18.3%가 증가하는등 과소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소비증가 추이

	1980~1985	1986~1989	1989	1990상반기
경제성장률(%)	6.2	11.2	6.7	9.9
1차 에너지증가율(%)	4.5	9.7	8.4	14.3
최종에너지증가율(%)				
산 업	4.0	11.4	9.5	14.4
수 송	3.0	16.3	14.2	16.2
가 정·상 업	4.7	2.4	1.9	12.8
공 공·기 타	3.8	6.1	11.3	8.1

소비성 에너지소비 증가율

(단위 : %)

	1986~1989	1989	1990상반기
수송용 휘발유	31.0	37.5	33.9
가정·산업용 등유	16.2	52.9	101.3
상업서비스 전력	21.2	23.1	26.6
가정용 전력	12.0	14.9	18.3

이 같은 에너지소비증가는 '86년 이후 계속적인 에너지 가격 인하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편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에너지 / GNP 탄성치, 제조업 에너지의 부가가치 탄성치, 石油 및 에너지해외 의존도 등 지표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전력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문제

였다. 지난 8월 13일의 전력 최대수요는 17,252천kw로 지금까지의 최대치를 기록하여, 공급 예비율이 8.3%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는 시작 최대 수요 15,058천kw보다 14.6%가 증가한 것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는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86년부터 '90년간 롬어콘은 557천대에서 1,259천대로 2배 이상 늘었고, 사무실용은 72천대에서 274천대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 이들이 소비하는 전력량이 약 350만 내지 400만kw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3기 내지 4기를 건설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된다.

3. 전 망

'89년말에 전망한 바에 의하면 2000년의 국내에너지 총수요는 현재의 1.7배가 되고, 1인당 에너지소비와

에너지관련지표 추이

	1986	1987	1988	1989	1990. 1/4분기
에너지 / GNP탄성치	0.71	0.80	0.88	1.25	1.25
제조업에너지의 부가가치 탄성치	0.46	0.73	1.12	2.49	1.93
총에너지중 석유비중(%)	46.4	43.7	47.0	49.6	53.1
해외 의존도	78.2	80.0	83.2	85.5	85.6

'90. 7월 현재 소비자물가와 에너지가격지수 비교

('86. 1월 = 100)

소비자물가	등 유	경 유	휘발유	도 시 가 스		전 력	연 탄
				취사용	난방용		
128	64	65	57	69	51	81	114

전기소비는 현재의 서구수준에 접근하며, 깨끗하고 편리한 전기, 가스 및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형의 에너지모습이 될 것으로 보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에너지소비동향을 보면, 이같은 전망에 너무 급격히 접근하는 추세이나, 최근의 중동사태가 이같은 추세와 전망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것인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에너지동향이 경제성과 편리성, 청결성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온 큰 줄기가 국민소득의 증가와 기술수준의 향상등으로 계속 이어지리라 전망되며 이같은 전망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V. 에너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중장기 국내에너지소비구조 전망에 따라 전기, 가스 및 石油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부존 여건상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西獨, 英國, 日本등의 예를 들어 우리 유일의 부존자원인 국내석탄에 대한 국산에너지로서의 위상을 재검토하여 국산에너지로서 국익 및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국내석탄산업이 '60년대부터 가정연료의 주종으로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현재도 다른 에너지보다 가정연료의 비중이 높으며, 부존여건등 공급측면에서도 상당량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그 정도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탄광은 계속 육성하고, 부존상태 및 채탄 여건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탄광은 원활하게 폐광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석탄산업의 전반적인 체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석탄산업이 합리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내에너지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곧 국내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해외의존도를 감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심화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 심화는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그 불확실성을 더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처지로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미해결의 과제일런지 모른다.

우리는 그동안 소요에너지의 안정확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源을 석유중심에서 유연탄 및 원자력, LNG 등으로 다원화를 이룩했고, 특히 석유부문에서는 도입선의 다변화, 중동의존도 감축 및 정부비축등의 시책과 동시에 국내의 유전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중동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룩한 공급 기반이 다소의 여유를 제공하기는 하나 구조적인 대응에 미흡하다는 것을 절감케 하고 있다.

따라서 石油 및 LNG의 장기 안정적 도입방안의 지속적 강구를 주요기둥으로 하되, 유연탄과 해외유전개발 등 개발수입기반을 확충하며, 원자력기술자립을 조속히 실현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石油수급의 취약성을 LNG의 안정확보 유연탄과 해외개발유동 해외개발자원의 확보와 원자력의 국산화등 세가지 방안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石油대체 에너지로서 태양열, 바이오메스, 수력등의 역할도 기대해야 하겠다.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87년에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代替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등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다수의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재정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총에너지수요의 0.26%에 불과하다.

2001년까지 기술개발기반 구축 및 실용화기반구축 단계를 거쳐 기술개발자립 및 실용화확대 단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자하여 총에너지중 비중을 3%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이나 중동사태를 계기로 이 부분의 시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메마침 外誌는 중동사태로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로 한국을 4번째 순서로 올려놓고 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소비절약 또는 이용효율이 그만큼 뒤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10년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사용설비의 개체, 설비이용방법의 개선, 새로운 에너지절약기법의 도입등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總에너지 투입비중(에너지 / GNP)은 '80년대 0.84에서 '88년에는 0.67로 약 21% 改善되었으며, 石油, 식품, 금속, 요업등 주요제품생산에너지사용량(원단위)도 같은 기간동안 27.5%가 감소되었고,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도 크게 향상되어 냉장고의 전력소비는 64%, 자동차의 연료소비는 13.9~59.7%씩 감소되었고, 보일러의 운전효율은 76.5~81%로 향상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이 개선되던 것이 '80년대초 중반의 저유가가 지속됨으로써 '89년부터 뒤떨어지고 있어 이를 다시 개선되는 추세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에너지소비절약 운동이다.

에너지소비절약 또는 이용효율의 향상은 그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같으므로 에너지의 안정공급 기반 구축의 또하나의 방안이 될 뿐아니라, 이를 위하여는 반도체, 통신, 정보등 첨단분야로 산업의 구조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를 이룩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요에너지의 안정확보 및 에너지소비절약 또는 이용효율향상 못지 않게 에너지배분부문의 정책과제도

중시되어야 하겠다.

우선 소요물량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에너지 관련 설비의 증설과 확충이 필요하다.

석유수요의 증가 및 고급화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정제시설증설,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설치, 물동량증가를 처리하기 위한 전국송유관건설 및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전국가스배관망 建設계획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초까지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 5기를 포함한 총 47기의 신규발전소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소요에너지물량의 증대와 최고급화추세에 대응할 배분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지방화, 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 이해우선 추세를 적절히 수용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집중적 에너지배분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투자가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배분 및 이용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생활 속의 예절 □

直系와 傍系의 呼稱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曾祖父라 하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高祖父라 하며, 直系尊屬이다. 先祖 때부터 長男으로 계승되어 내려온 자손을 宗孫이라 하고, 그 집안을 宗家라 한다.

나의 아들의 아들을 손자라 하고, 손자의 아들은 曾孫이라 하며, 孫子의 孫子는 玄孫이라 한다.

나의 아버지의 형님은 큰아버지(伯父), 큰아버지의 부인은 큰어머니(伯母)라 하며,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 아버지(叔父), 작은아버지의 부인은 작은 어머니(叔母)라 하며, 아버지의 막내 동생은 아저씨라 하며, 아저씨의 부인은 아주머니라 한다. 아버지의 兄弟의 촌수는 나에게 三寸이 된다. 아버지의 兄弟의 子女와는 四寸間이다.

四寸兄 四寸동생 四寸누이 四寸누이동생이라 한다. 나의 할아버지兄弟는 從祖할아버지(從祖父), 종조부의 부인은 종조할머니(從祖母)이며, 종조부의 아들은 從叔父, 堂叔父라 하고, 五寸이 되며, 그 분의 자녀는 再從兄弟姊妹라 하고 六寸이 된다.

曾祖父의 형제는 從曾祖父라 하고, 從曾祖父의 아들은 再從祖父라 하며, 再從祖父라 하며, 再從祖父의 아들은 再從叔父 또는 再堂叔이며, 七寸이라 한다. 再從叔父의 아들은 再從兄弟姊妹라 하며, 나에게 八寸이 된다. 八寸以內의 父系血族은 민법상의 親族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수반된다.